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Message #21: The Intellect of the Empire Acts 17:16-34

설교 21 : 제국의 지능  
사도행전 17 : 16-34

Acts 17:16-17 16 Now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at Athens, his spirit was provoked within him as he saw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17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with the Jews and the devout persons, and in the market-place every day with those who happened to be there.

16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다. 17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 및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Acts 17:18-21 Some of the Epicurean and Stoic philosophers also conversed with him. And some said, "What does this babbler wish to say?" Others said, "He seems to be a preacher of foreign divinities"—because he was preaching Jesus and the resurrection. 19 And they took him and brought him to the Areopagus, saying, "May we know what this new teaching is that you are presenting? 20 For you bring some strange things to our ears. We wish to know therefore what these things mean." 21 Now all the Athenians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would spend their time in nothing except telling or hearing something new.

18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 고도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 교훈은 무엇이오? 20당신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21(아테네 사람들과 그 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cts 17:22-23 So Paul, standing in the midst of the Areopagus, said: "Men of Athens, I perceiv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23 For as I passed along and observed the objects of your worship, I found also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the unknown god.' What therefore you worship as unknown, this I proclaim to you.

22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23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Acts 17:24-26 The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being Lord of heaven and earth, does not live in temples made by man, 25 nor is he served by human hands, as though he needed anything, since he himself gives to all mankind life and breath and everything. 26 And he made from one man every nation of mankind to live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having determined allotted period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 place,

24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25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6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Acts 17:27-28 that they should seek God, and perhaps feel their way toward him and find him. Yet he is actually not far from each one of us, 28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s even some of your own poets have said, “‘For we are indeed his offspring.’

27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28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Acts 17:29-31 29 Being then God’s offspring, we ought not to think that the divine being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an image formed by the art and imagination of man. 30 The times of ignorance God overlooked,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31 because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a man whom he has appointed; and of this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29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30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1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